

# 국제수산 월간동향

2022. 1



한국원양산업협회

KOFCC 해외수산협력센터

## 목 차

1. 한국 살오징어 어획량 급감은 중국어선이 주요 원인
2. 어업 보조금,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질 때 부여해야
3. 중국, 2022년 IOTC 눈다랑어 할당 한도 이의 제기
4. Make 관리연합 NGO, 신규 MSC 기준의 제한점 우려
5. 미 바이든 정부 수산업 노동인권 문제 해결 노력 강화
6. NOAA 통발 어업 허가로 소송 당해
7. 조명 단 어망이 부수어획은 줄이고 어획효율은 높여
8. 통가 화산폭발의 농업과 어업에 대한 영향

### □ 한국 살오징어 어획량, 북한 해역에 중국어선이 진출한 이후 급감

- 중국어선의 북한수역에서의 조업이 급속도로 증가한 이래로 한국의 오징어 어획량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음
- 중국어선의 동해 진출이 한국 오징어 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일본 홋카이도기선 어업협동조합연합회가 보고했음
  - 중국과 북한이 제1차 북한-중국 어업협정을 2004년에 체결, 114척의 중국어선이 북한 수역에 처음으로 들어오게 됨
  - 이후, 중국어선은 북한 수역에서 2011년 1,299척, 2014년 1,904척, 2018년 2,161척으로 척수가 불어남
  - 그 결과, 한국과 일본의 오징어 어획량이 거의 매년 감소한 반면, 중국은 근해에서의 오징어 어획량이 점점 늘어나, 2017년에는 1,328톤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함

< 한국 근해 오징어 생산량 (한국 통계청 자료 기반) >

년도	생산량
2000년	22만 6,000톤
2005년	18만 9,000톤
2010년	15만 9,000톤
2015년	15만 5,000톤
2017년	8만 7,000톤
2018년	4만 6,000톤

- 한국의 근해 오징어 생산량은 2000년 이후 꾸준히 감소 추이를 보였고, 2018년에는 4만톤 대까지 감소했음
- 한국의 중국으로부터의 오징어 수입량은 2014년 8,800톤으로 오징어 수입량의 11% 정도였는데, 2018년에는 6만 9,889톤에 달하고, 전체 오징어 수입량의 반을 차지함
  -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한국 어민들은 현재 국내에서 소비되는 상당 양의 중국산 오징어가 사실 상 동해에서 어획된 오징어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중국어선의 오징어 조업 실태와 한국어선의 오징어 어획량 추이 간의 관련성을 보면, 오징어 어획이 급감한 주요 원인이 중국어선의 동해 진출 때문이라는 어민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최근 연구에 따르면, 북한 동해 수역에서 중국어선의 2017년에 900척, 2018년에 700척이 오징어 조업을 실시, 16만톤 이상을 어획하고 있다고 밝혀짐

※출처: 미나토 신문<sup>1)</sup>

---

1) <https://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articles/119645> ('21.1.26 검색)

## □ WTO 비공식 회의, 어업 보조금 관련 논의 이어져

-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영상회의 형식으로 스위스 정부가 개최한 세계무역기구(WTO) 비공식 각료회의에 참가
  - 일본 농림수산성 부대신은 어업 보조금을 국제적으로 규제하는 부분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상을 착실히 추진해가야 한다”, “적절한 자원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발언
  - 어업 보조금 규제는 작년 WTO 각료회의 (21.11.20~12.3) 의제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되어 논의되지 못함
- 작년 11월 24일 시점 최종안에서는 “어떠한 국가도 초과어획으로 이어질 수 있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는다”고 원칙적으로 폐기하는 방침을 명기
  -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안도 추가적으로 논의됨
    - (1) 어업 자원 유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인정한다는 규정
    - (2) 자원관리체제가 부족한 개발도상국의 실정을 고려해 폐지까지의 이행기간을 두는 것
    - (3) 어획량 세계 세어가 10% 이상인 국가(중국)를 개발도상국 취급에서 폐지하는 것
  - 현시점에서 개발도상국 측에서는 “자원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선진국에만 보조금이 허용된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불만이 존재
  - 개발도상국에게 주는 이행기간에 대해, 선진국은 최대한 짧게 설정하고 싶어하고, 개발도상국은 길게 설정하고 싶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0~25년 정도의

차이가 있었음

- 일부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자원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든, 이루어지고 있지 않든 여부에 관계 없이 금지 보조금 종류를 리스트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1) 이행 기간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지, (2) 자원관리가 이루어질 시에는 보조금을 허용할지 여부의 2가지는 향후 협상타결을 위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임
- 향후 WTO의 공개적인 회의 일정은 구체적으로는 미정인 상태

※ 출처: 미나토 신문<sup>2)</sup>

---

2) <https://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articles/119809> (22년 1월 25일 검색)

□ 중국은 IOTC의 2022년 눈다랑어 할당 한도 기준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하였음

- IOTC는 현재 중국과 대만은 한 자주권(sovcreignty)으로 인정하여 중국의 2022년 어획 한도에 10,557MT를 할당하였으며 이 한도에 대만도 포함되어있음
  - 이에 대하여 중국은 대만과 중국의 어획량에 따라 다르게 고려되어야하며 다년간 관례에 따르면 중국은 4,641MT이며 대만은 10,688MT임을 주장
  - 각 나라의 어획량에 따라 기준을 달리하는 것이 관례이며 이에 따라 대만은 임계치 이하 기준에서 어획하였으며 중국은 그 이상에서 어획하여 두 나라의 측정 기준이 다름을 어필
- IOTC는 인도양 눈다랑어 자원량을 회복하기 위한 계획으로 2022년 어획 제한을 설정한 바 있음
  - IOTC는 위원회에서 중국이 본 계산에 대한 불만을 해결하도록 요청받은 적이 없음을 확인
  - IOTC의 어획 한도 계산은 과학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며 2022년 6월에 연승을 제외한 모든 어구에 따른 어획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현 2022년 어획 제한은 잠정적인 것임을 언급함 (연승 어획 데이터는 2022년 12월에 제공됨)
- 일본은 중국 입장을 지지함
  - IOTC는 결의 16/01에 따라 그동안 눈다랑어 어획 한도를 다르게 측정 받았으

며 결의 21/01가 이 결의의 뒤를 이어 중국 및 대만에게 다르게 측정해야한다고 중국 입장을 지지하였음

- 25차 위원회에서는 중국과 대만의 할당량을 다르게 측정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  
대가 없었음을 확인

※ 출처: SeafoodSource<sup>3)</sup>

---

<sup>3)</sup><https://www.seafoodsource.com/news/supply-trade/china-protests-iotc-yellowfin-tuna-allocation-limits-for-2022> ('22년 01월 27일 검색)

- MSC는 2022년 2월, 인증을 위한 신규 기준을 발간할 계획에 있으며 그 초안에 대하여 Make Stewardship Count Coalition(Make 연합)은 지속가능한 수산물 인증을 위한 요구 기준이 더욱 개선되어야함을 강하게 촉구하였음
  - Make 연합은 다년간의 MSC 어업 기준 검토 절차를 평가한 점수표를 발간하였으며 이는 MSC 수산물 인증 프로그램의 치명적인 결점에 대한 목록을 포함하고 있음
    - 점수표에 따르면 MSC 인증 절차의 협의 마지막 단계에서 투명성이 결여되어있음
  - MSC가 지속가능성 수준을 더욱 높이 끌어올릴 수 없다면 라벨은 더이상 변화의 인센티브로 활용될 수 있는 가치가 하락할 것
    - 초안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해양 어업 관리 및 이행 강화를 위해 힘쓰는 전세계의 노력을 차단할 수 있어 깊이 우려하였음
    - 새로운 기준은 shark-finning과 같이 취약 및 보호종의 위기를 제거하기에 부족함
    - 기준들의 언어가 불확실하여 부수어획이 높은 어업도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제기하여 이런 경우 멸종 위기에 있거나 위협을 받은 해양 생물들의 부수어획을 줄일 수 없음

- MSC는 최종 초안을 2022년 1월 24일에 결정되며 이해당사자들에게 2월 1일에 회람되어 60일동안 자문을 받도록 할 것
- Make 연합은 90개가 넘는 NGOs, 전문가, 기관 및 연구원이 모인 단체로 MSC 기준 및 인증의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목표를 가졌음

※ 출처: SeafoodSource<sup>4)</sup>

---

4)<https://www.seafoodsource.com/news/environment-sustainability/make-stewardship-count-coalition-raises-concerns-about-new-msc-standard#:~:text=The%20Make%20Stewardship%20Count%20Coalition,achieving%20its%20sustainable%20seafood%20certification> ('22년 01월 27일 검색)

- 국내외 기관들과 수산업 인신매매 근절 협력 강화를 위한 국가 행동계획 발표
  - 미 바이든 정부가 세계 수산업에 존재하는 노동 문제 등 국내외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을 발표함
  - 지난 2021년 12월에 발표된 본 행동계획은 미 기관들과 타국 집행기관들이 어선 및 내륙 수산물 처리시설에 존재하는 인신매매를 추적하여 기소하는 내용을 포함함
  - 본 계획에 따라 미 무역 대표부(USTR)는 다른 국가들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예정임
  - 미 수산업 교역 그룹 National Fisheries Institute의 회장은 지난 12월 23일 발표한 2022년 신년사에서 노동 이슈를 가장 큰 우려로 묘사하며 어선 노동자의 공정한 대우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등 이번 바이든 정책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임
  - 다른 한 편에서는 이번 신규 정책으로 교역이 중국 등 투명하지 못한 시장으로 밀려갈 가능성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 이러한 반대의 목소리 속에서 정부 정책이나 NGO의 개입보다는 기술을 통해 수산 공급사슬 내 노동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음
  - 본 주장은 추적 기술(tracking technology)이 현재 상업 위성에 따른 전자 서명(electronic signatures)에만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C-level 기술로서 열과 빛을 감지하는 기술에 비하여 매우 불명확한 만큼, 현재 군용으로 제한되어 있는 A-level 및 B-level 기술이 어선에 적용된다면 해상 어선 감시가 더 강화될 것이라는 내용임

- 동시에 이번 바이든 정부의 정책은 세계 제1 수산물 시장인 중국이 자국 정책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음
- 실제로 중국은 최근 중국 불법비보고·비규제(IUU) 및 강제노동 의심 선박에 대한 미국의 제재 조치에 대해 방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 미디어는 이러한 미국의 조치를 중국 상품에 대한 미국의 자국 보호주의로 묘사하고 있음

※ 기사 출처: Seafoodsource<sup>5)</sup>

---

<https://www.seafoodsource.com/news/environment-sustainability/biden-administration-turning-attention-to-seafood-s-labor-issues> (22년 1월 24일 검색)

### □ 환경단체 NOAA가 멸종위기종보호법 및 해양포유류법 위반 주장

- 지난 10일 환경단체 Center for Biological Diversity가 태평양 흑등고래에 영향을 미치는 은대구 통발 어업(pot fisheries)을 허가한 미 해양대기청(NOAA)에 소송을 제기함
- 지난 2021년 12월 NOAA는 은대구(sablefish) 어획을 위한 통발 어구 사용을 허가하였음
- 본 어구는 해저 바닥으로 떨어지는 2마일(약 3.2km) 길이의 줄에 매달려 있는 형태임
- Center for Biological Diversity는 멸종위기 종인 흑등고래가 본 어구 줄에 걸릴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흑등고래가 통발 줄에 걸리면 질식, 아사 혹은 감염이 될 수 있음
- 본 단체에 따르면 미국에서 매년 약 50마리의 흑등고래가 인간 활동으로 인하여 심각한 부상을 입고 있으며, 이는 2018년 대비 약 400 퍼센트 증가한 수치임
- 그리고 이러한 사망 및 부상의 절반 정도가 어업에 기인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통발 어구는 4,800 제곱 해리 이상의 수역에서 이용되고 있으며, 이는 2021년 4월 바이든 정부가 중요 서식지로 식별된 태평양 116,000 제곱 해리에 위치함
- 본 단체는 NOAA에게 고래 및 기타 해양 포유류에 대한 위험을 경감할 수 있는 줄이 없는 통발 어구를 허가하도록 촉구함
- 본 소송을 통해 본 환경단체는 NOAA 수산청이 통발 어업 허가를 통해 멸종위기종보호법(the

Endangered Species Act) 및 해양포유류보호법(the Marine Mammal Protection Act)을 위반하였다는 판결을 받으려 하고 있음

- 본 단체는 해삼 등을 보호하기 위해 turtle excluder 이용에 대해 NOAA 및 다른 미 기관에 다수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멸종위기종보호법 위반으로 미 랍스터 어업에서 승소하기도 하였음

출처: Seafoodsource<sup>6)</sup>

---

<https://www.seafoodsource.com/news/environment-sustainability/noaa-fisheries-sued-over-pot-gear-permit-that-threatens-humpbacks> (22년 1월 24일 검색)

- 상업어업과 해양동물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명등을 사용한 자망이 상어, 가오리, 바다거북, 그리고 기타 잡어들의 우연적 부수어획을 현격히 감소시킬 수 있음이 확인되었음.
- Current Biology 저널에 연구 결과를 발표한 연구자들은 조명이 있는 자망이 전체 부수어획을 63% 감소시켰고, 상어, 홍어, 가오리는 95% 감소시켰고, 흙볼트 오징어는 81% 감소시켰고, 기타 잡어는 48% 감소시키면서도 목표종의 어획율과 시장가치는 유지되었음을 발견하였음.
- 자망은 세계 연안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어구이지만, 어민들이 목표로 하고 있지 않은 동물들을 같이 어획하고 있음. 여기에는 상어, 바다거북, 해양포유류, 바닷새, 잡어, 목표종 치어들이 포함됨. 이 동물들은 폐사하고 결국 폐기됨. 연안 자망어업에서 부수어획은 멸종위기에 처한 종들의 감소에 기여하였고 연안 생태계에 영향을 미쳤음.
- 지난 10년간, LED 조명을 단 자망이 연안 자망어업에서 멸종위기에 처한 바다거북의 부수어획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로 부상하였음. 하지만, 조명을 단 자망의 다른 취약한 어종들, 전체 부수어획, 그리고 조업의 효율성에 대한 영향은 지금까지 검증되지 않았음.
- 연구자들은 멕시코 태평양 연안지역에서 자망에 10미터 간격으로 녹색 LED 조명을 부착하였는데, 조명이 있는 자망이 상어, 홍어, 가오리의 부수어획을 거의 발생시키지 않은 사실에 놀랐음.
- 또한, 조명을 단 자망이 어민들이 어망을 회수하여 엉킴을 푸는 시간도 57%

감소시켜, 부수어획 우려 없이 조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어민들에게 매력적인 기술이 될 수 있음을 보였음. 조명을 단 자망을 사용할 경우, 항차별 1시간 이상이 절약되어 어획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연구의 리더 저자인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의 Jesse Senko는 “이 결과는 조명을 단 자망의 유익이 바다거북을 넘어서고, 세계 바다의 연안 자망어업에서 폐기되는 부수어획을 저감시킬 수 있는 희망을 준다”고 말했음.
- 공동저자 중 한명인 Hoyt Peckham은 “자망은 값이 저렴하고 지나가는 모든 것을 어획함으로 인해 흔히 사용되고 있는 어구이다. 이 연구는 자망의 선별성을 증가시키고 부수어획을 방지함으로써 실용적인 해결책을 제공한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향후 신기술로 자망 재료에 이러한 조명을 도입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므로 이 해결책은 어업인들에게 쉬운 결정이 될 것이다”고 말했음.
- NOAA의 John Wang은 “부수어획을 푸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감소시키는 것은 자망에 어획된 부수어획량을 감소시키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어민들에게 이익이 됨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음.
- WCS는 해양동물의 부수어획을 감소시키기 위해 많은 연안국가에서 작업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까지 부수어획을 감소시키면서 생계 및 식량안보를 위해 중요한 어획의 계속성을 허용하는 좋은 기술적 해결책이 없었음. 이 작업은 멸종 위험에 처한 전 세계 해양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고, WCS의 세계 해양보존 작업의 일부로서 계속 탐구될 것임.

※ 출처: [www.sciencedaily.com](http://www.sciencedaily.com) 7)

7) <https://www.sciencedaily.com/releases/2022/01/20220121124845.htm> (2022년 1월 21일 기사)

- 통가에서 발생한 대규모 화산폭발과 쓰나미로 남태평양 섬나라 농민과 어민들은 극심한 생계 어려움을 겪을 것임.
- 통가 주민의 약 86%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FAO는 재난의 어업, 작물, 가축을 포함한 모든 농업 부문에 대한 영향에 매우 우려하고 있음. 사모아에 있는 FAO 태평양제도 지역조정관 Xiangjun Yao에 의하면, 통가에서 12만 가구 또는 전체의 85%가 재난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Yao는 “우리는 이 재난이 통가에서 여러 형태의 농업에 의존하고 있는 농민과 어민들에게 얼마나 피해를 미쳤는지를 파악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우리는 최근 몇 년간 일련의 재난으로 통가에 지원을 제공해 왔다. 이번 재난은 그 중에서도 최악으로 이들 취약한 공동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음.
- 첫 번째 도전은 섬의 지역들을 덮은 화산재의 영향과 농업과 어업에 대한 쓰나미의 피해를 파악하는 것임.

#### ■ 화산재와 쓰나미에 의한 심각한 영향

- 화산재는 작물과 가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음. 이는 화산재의 두께, 작물의 종류와 재배 조건, 후속 강우의 시점 및 정도, 화산재가 덮이기 전 목초지 및 동물들의 조건, 그리고 오염되지 않은 먹이와 물의 가용성에 좌우됨.
- 감자 및 고구마와 같은 근채작물도 영향을 받았을 수 있고, 군도 전역의 과일과 야채 작물 또한 위험에 노출되었음. 바닷물 범람도 농지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고, 산성비의 가능성도 우려 사항임.

- FAO는 가축을 사육하는 가구의 60-70% - 주로 돼지와 가금류 - 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어업에 대한 영향도 우려되고 있음. 통가는 태평양 지역국가로서는 1인당 수산물 소비(연간 25-35kg)가 다소 낮은 편이지만, 이번 재난 이후, 지역 식량 공급을 생산하는 토지에 대한 화산재의 영향을 고려할 때, 어업이 앞으로 더 중요한 식량 공급원이 될 수 있음.
- 선박과 선착장에 대한 피해는 이미 분명하고 건강한 어업이 의존하고 있는 연안의 많은 산호와 석호들이 화산재와 쓰나미로 인해 파괴되거나 오염되었을 수 있음.
- Yao는 "전체적인 상황이 아직 파악되고 있지 않지만, 통가는 장단기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FAO는 이미 피해 파악과 구호를 위해 펀드를 이전하고 있다"고 말했음.
- 이번 화산 폭발 이전에도 통가 인구의 23%는 식량 불안정으로 영향을 받았음.
- 농업 부문은 통가 GDP의 약 14%(2015/16년)를 차지하고 있고, 수출의 65%를 차지함. 주요 수출 상품은 카바, 호박, 근채작물, 코코넛 그리고 수산물임. 수산물과 수산 관련 활동은 식량의 중요한 근원이고, 특히 거주민이 있는 36개 섬의 공동체들에게 특히 그러함.

## ■ 통가에 대한 재난 지원

- FAO는 회복력 강화와 식량안보, 젊은 농민 훈련, 장식용 식물 재배를 위한 여성 지원,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통가에서 수년간 작업을 해왔음.
- 통가는 모두 169개 섬으로 구성되어 있고, 태평양 14개 소도서개도국(SIDS) 중 하나임. 통가 지역은 세계적인 재난 취약 지역 중 하나로서, 사이클론, 가뭄, 화산 등 여러 자연재해들을 겪고 있음. 통가, 바누아투, 솔로몬 제도, 피지는

기후 위기 취약성을 포함하여, 세계에서 자연재해에 가장 취약한 15개 국가 중 하나임.

- FAO는 2016년 열대성 사이클론 Winston; 2016-17년 엘니뇨 이후 가뭄, 2018년 열대성 사이클론 Gita, 2014년 열대성 사이클론 Ian 등 여러 재난 이후 대응 지원을 해왔음.
- FAO는 또한 화산폭발로 피해를 입은 여러 국가들에 지원을 제공하였음. 여기에는 2021년 화산이 폭발한 세인트빈센트 앤 그레나딘도 포함됨. FAO는 생계와 식량안보 보호에 초점을 두고, 피해 입은 가구들이 신속히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동물들의 대피, 가축 재사육, 종묘와 도구 제공을 지원하였음.

※ 출처: [www.seafood.media](http://www.seafood.media) 8)

---

8) <https://www.seafood.media/fis/worldnews/worldnews.asp?e&id=116435&ndb=1> (2022년 1월 25일 기사)